

한국경제의 위기와 중소기업



한국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심각한 불확실성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세기 후반 경제성장의 모델 국가로서 한때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렸으며, 지금도 전 세계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한국경제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아보면 1) 고용없는 성장, 2) 내수침체, 3) 중산층 감소와 빈곤층 증가, 4) 가계부채 증가, 5) 양극화와 이중구조 추세 등이다. 낮은 성장과 고용창출 문제가 심각하며,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자리 부족과 소상공인

공인의 사업실패는 새로운 빈곤층 증가와 함께 가족 해체,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세수부족 상태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저생산성→저성과→저소득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는 분야가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수출마저 부진해지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원인 중 첫 번째는 오랜 동안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대기업주도 수출의존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주력 사업분야가 대부분 성숙포화상태의 공급과잉 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선, 철강, 모바일,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에 이르기까지 구조불황 속에서 저성과 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은 최근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면서 심각한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통계적 요인과 건설과 부동산의 경기 견인 효과마저 미약하다 보니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이 부진한 상태에서, 고용의 절대 다수를 자영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경제 활력이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대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집단의 폐쇄성과 지배구조가 과감한 자기개혁과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룹회장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가운데 개인의 법적, 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기업이미지가 추락하는 소위 '총수 리스크

(owner risk)'가 커지고 있다. 혈연 중심의 폐쇄적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재벌권력은 관계, 법조계, 언론계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 움직임을 저지하고 있다. 현재 재벌은 3대 세습까지 이어지면서 기업가정신은 쇠퇴하고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배구조개혁과 내부거래제한 강화를 통해 그동안의 리그인 폐쇄적 생태계를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 경쟁대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내수시장에서 새로운 중소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인해 생산기지 해외 이전 압박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고임금 대기업에 구직자가 몰리고 상대적으로 보상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만연되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지지부진 상태에 있다. 지난 30년간 급성장한 노동권력은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성 정치 노조활동을 통해 대기업 중심 노조집단의 이익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업을 강행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임금인상 부담을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통해 대기업 노조의 일방적 임금인상 압력을 견제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여야만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내수시장을 보면 유통산업에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독과점 구조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다. 지난 20여 년간 유통대기업의 공격적 사업확장에 의해 기

존 상권을 둘러싼 기업형 대자본과 개인형 소자본간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져 왔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의한 자영업 공급과잉이 가속화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게 되었다. 정부가 개입해서 영업시간 규제, 거리제한 등의 경쟁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위장 중소기업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다수를 점한 업종에서 대기업의 공격적인 확장 자체를 요구하는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도 양자 모두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내수부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쏟아 냈지만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 등 연이은 악재 속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상태이다. 300만 소상공인, 560만 자영업자는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내수의 기반을 형성하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이들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의 기본 체력이 저하되고 결국 대기업도 생존기반을 잃게 된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생의 생태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의 동시적 추진을 통해 선진화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재벌 권력에 대항하는 노동권력이 급성장하면서 대립갈등을 빚어왔지만 현재 상황은 재벌권력과 노동권력의 암묵적 담합하에 공생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나 사회 정의에 반하는 자신들만의 폐쇄적 이권보호에 충실하면서 상대적인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한국경제의 취약점인 자영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회형 창업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를 증가시켜야 한다. 자영업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어렵고 정책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쉽지 않다. 카드 수수료 인하나 이자부담 완화 등을 통한 비용절감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 일자리를 증가시켜 고용의 자영업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적극 활성화하여 우수 전문인력의 기회형 창업 도전 성공사례를 보다 많이 창출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좁은 내수시장을 탈피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회형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교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의 고취와 함께 기업가적 역량을 키울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금융 지식을 가르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에 도전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사업실패로 인한 기업가 개인의 인생실패 부담을 줄여 주고,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나 채무조정 제도 도입,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여건을 개선해 왔지만 선진국형 생태계를 만들려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일정기간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감한 사회 개혁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의 문화와 관행이 지배하는 균형잡힌 사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스코어가 벌어지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초원이 황폐화되어 토끼나 여우같은 초식동물이 생존할 수 없으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생태계의 법칙이다. 강자 중심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갑을 관계가 아닌 “너와 나”라는 인격적 관계가 지배하는 신뢰, 소통, 공감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극좌나 극우적 단순 논리를 피하면서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수세력은 보다 개혁적이 되어야 하며 진보세력은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세계무대의 최변방국가에서 중심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고, 힘의 논리에 의한 수직적 관계 속에서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회 관행, 소위 갑을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초고속 산업화를 실현하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효율성과 경쟁력이 약한 영역의 도태나 몰락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소홀히 한 나머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시장 경제와 경쟁의 효율성을 기본 전제로 존립하지만, 사회적 약자 집단의 몰락을 방지하게 되면 사회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이동성의 약화는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의 창조성과 도전정신의 고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기회형 창업활성화를 통해 생존력이 높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하고, 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자영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안정된 중산층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어느 시대이든지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과감하게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되고 결국 그 사회는 쇠퇴를 면치 못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이 커지게 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성장잠재력은 약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자기가 속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 전체 차원의 구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눈앞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봉책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하면서 개혁에 동참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때이다.



글 | 한정화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다. 서울대 경영학사,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MBA, 경영학 박사, 전략경영학회 회장, 중소기업학 회장, 인사조직학회 회장, 코스닥 상장위원장,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였다.